

농촌공 나주시사, 장애 어린이집 후원

2026년 07월 19일(일) 17:09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는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 소재 장애 전문 어린이집인 해뜨는어린이집을 찾아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아이들이 장애와 발달의 차이를 넘어 각자의 속도에 맞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뜨는어린이집은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화 교육을 비롯해 언어·작업치료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며 아동의 성장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전달된 기부금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보육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류화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은 “아이들의 성장은 한 기관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응원하고 보듬어야 할 일”이라며 “작은 나눔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나주=조충권 기자

이 기사는 전남매일 홈페이지(www.jndn.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84448549436221011>

프린트 시간 : 2026년 07월 30일 15:01:52